

국내 대기업, 글로벌 위기 속 ‘모빌리티·R&D’ 인재 찾는다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 스타트

삼성 19개 계열사 공채 본격 돌입
LG R&D 등 미래 인재 집중 확보
현대차 AAM·AI 분야 경력 채용
기아 신입·경력 인재 동시 모집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미래 인재 확보와 일자리 확대에 나섰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지만 미래 인재 확보로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9월 1일부터 신입, 경력, 외국인, 장애인 인재를 대상으로 목적기반차량(PBV), ICT, 글로벌사업, 국내사업, 상품 등 26개 부문에서 진행한다. 기아가 신입, 경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현대차

력, 외국인, 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서 접수수는 신입, 외국인, 장애인 채용의 경우 9월 1~15일, 경력 채용은 9월 15~29일 각각 진행된다.

기아는 9월 1~11일 대학교 등 12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커리어 캠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스’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현직자 상담을 포함한 채용 박람회, 팝업 행사 등으로 구성돼 구직자가 회사를 접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매달 수시채용을 진행 중인 현대차는 품질관리, 보안,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인공지능(AI) ICT 등의 분야에서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기아 관계자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인재와 함께 더욱 창의적인 기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도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하반기 채용에 나선다. 올해 들어 대미 관세 부담, 주요 시장의 가전 수요 회복 지연 등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인재 확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중 유일하게 대규모 공채 제도를 유지 중인 삼성은 9월 3일까지 ‘삼성커리어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직무 적합성평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등을 거쳐 연말쯤 합격자를

확정할 전망이다.

LG전자도 하반기 신입사원 집중 채용에 돌입했다. LG전자는 9월 22일까지 LG그룹 채용 포털 ‘LG 커리어스’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및 산학협동 학생 프로그램 LGE 멤버스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로봇, 소프트웨어, 소재/재료, 통신, 기계, 전기전자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영업·마케팅 등이다.

LG전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공채 대신 필요한 지원자가 원하는 직군이나 직무에 맞춰 연중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 등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등 직무별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는 수시 채용의 장점인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원자들이 채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인 기업 644만개 돌파 ‘역대 최대치’

중기부, 고용·체력 약화에 해법 모색
3년새 3.8%p ↑, 2인 이상 기업 줄어
韓 장관 “증가세 주시, 분석 후 반영”

사장님 혼자서 일하는 ‘1인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인 이상 기업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기업의 증가세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기업 숫자는 644만개로 1년새 29만개가 증가했다. 2020년 당시 537만5000개였던 1인 기업은 2021년 579만5000개, 2022년 615만개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표자 외에 직원이 있는 2인 이

상 기업은 191만1000(2020년)→191만9000(2021년)→189만3000(2022년)→185만9000개(2023년)로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당시 73.8%에서 2023년에는 77.6%까지 증가했다. 3년새 3.8%포인트(p) 늘었다. 사장이 곧 직원인 1인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육박하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운데 2인 이상 기업은 줄고 있는데 유독 1인 기업만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인 기업 중에서도 무점포 소매업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면서 “통신판매업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유튜버 등이 대표적인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취임 30일 간담회에서 1인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1인 기업 숫자가 굉장히 많다.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스스로 고용을 하고 있는 등 1인 사업자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플랫폼의 확장으로 1인 기업이 늘었다고도 보여지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가 내놓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911만8000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귀뚜라미, ‘따숨케어’ 사후관리 대폭 강화

관리기간 5년·8년 세분화 선택 폭 확대

귀뚜라미가 현대렌탈케어와 협업해 선보이는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의 이용 조건을 9월 1일부터 대폭 업그레이드하며 소비자 편의를 강화한다.

31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는 렌탈 서비스를 더욱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따숨케어 관리 기간을 5년(60개월)과 8년(96개월)으로 세분화했다. ▲최대 8년 무상 A/S 제공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렌탈요금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고급형(거꾸로 ECO 콘덴싱 L20 가스보일러) 모델은 5년 기준 최저 월 2만7900원, 8년 기준 최저 월 1만8900원으로 따숨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귀뚜라미의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 서비스 이미지.

현대렌탈카드 제휴 신용카드로 렌탈요금 자동납부를 할 경우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2만5000원까지 렌탈요금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따숨케어 고급형 모델(22K 용량)에 8년 기간으로 가입하고, 제휴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으면 최저 월 4900원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K-中企’ 美 수출 본격화… 글로벌 도약 준비

중기중앙회-미주한상총연 MOU
내년 하반기 한국상품전시회 공동 개최
金 회장 “美, 중요한 시장… 협력 당부”

중소기업중앙회가 K-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미주한상총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을 비롯한 양 단체 주요 임원, 미주한상총연 78개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등 재외동포경제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CES 등 글로벌 전시회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내년 하반기에 한국상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시회(K-Goods Fair)를 열고, 참가기업 모집·홍보·바이어 섭외 등 전시회 준비 전반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K-뷰티, K-푸드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인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련됐다.

김 회장은 “2023년 애너하임과 2025년 애틀랜타에서 두 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며 한국상품의 저력과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한국 중소기업 수출이 매년 증가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내년 한국상품전시회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주 재외동포 경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글로벌 쇼룸’ 참가기업 30곳 모집

12월 쿠알라룸푸르서 개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말레이시아 글로벌 쇼룸 참가기업 30곳을 모집한다.

31일 소진공에 따르면 ‘글로벌 쇼룸’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현지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쇼룸은 오는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쇼룸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현지 팝업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바이어상담회를 통해 B2B거래 기회를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현지 사용자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전을 통해 고객 및 제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해 말레이시아

로 직접 가지 않고 물품만 현지로 배송하는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외 플랫폼 입점 경험이 있거나 해외 수출·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화장품과 식품 등 K-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중심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다.

말레이시아당국이 인정하는 할랄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평가 우대해 선정한다.

해외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쇼룸 운영 전까지는 반드시 해외 플랫폼에 입점해야 하고, 통관제재로 판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승호 기자